

불자세상보기



황재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최근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먹거리라고 하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외식소비를 의미한다.

이런 먹거리는 국내생산을 통해 공급되기도 하지만, 좁은 국내 농경지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해외 수입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중 해외생산 농식품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위생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다보면 식품의 위생 안전문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사부대중 칼럼



나정 동국대 불교이동학과 교수

최근 부산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영아를 폭행하는 동영상 공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원장도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령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육체적인 학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심리적 학대는 막을 수 없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빛만으로도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정성, 건전 사회의 바로미터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 일본에서 발생한 유키지루시(설인)유업 집단식중독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00년 일본에서 발생한 유키지루시(설인)유업 집단식중독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25년에 북해도에서 창업한 유키지루시유업은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유제품생산업체로서 10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식품전문업체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0년 6월 유키지루시 유업 오사카공장에서 생산된 '유키지루시 저지방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일으키며 14,780명의 소비자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키지루시 유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자회사인 유키지루시 식품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둔갑시켜 속여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유키지루시 유업의 도산으로 인해 본사가 위치한 북해도의 지역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보았을 뿐 아니라, 우유를 공급해온 축산농가 등 관련 경제 주체들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키지루시 유업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4,780명의 소비자가 구토와 설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피해 증정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식품소비 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수입, 판매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식자재 원산지표기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은 그 사회의 기업윤리와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위생과 안전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전성과 미래성장성을 나타내는 표시라 할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가 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사 중 기독교인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진다. 교사들은 심상을 다듬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지 살핀다.

동국대(경주)에서도 불교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숲 명상 등 심신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아이들의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경주) 불교아동학과와 유아교육학과 및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양성 1년 코스를 통해 보육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1년에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막상 불교계 어린이집과 인연을 맺기란 쉽지 않다.

들 사이에 취업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직장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과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직장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보육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계 어린이집부터라도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불교계는 보육교사의 심상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불교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가 가장 행복한 아이들과 교사 이기를 바란다.

社說

문화재 조사·발굴 사업에 거는 기대

최근 불교계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 사업이 활발하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 금석문 일제 조사 사업에 들어가고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국 사지에 대한 시·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석문 일제 조사는 15년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불사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국 산재된 금석문에 대한 기초 목록화 조사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5월 1일 경주 미탄사에서 정토재를 열고 사업 시작을 알린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국사지 시·발굴 조사사업은 이날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폐사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이나 역사·문화·교육 효과가 큰 곳부터 실시된다. 2013년에는 경주 미탄사와 보성 개흥사 옛 절터에 대한 시굴사업이 진행되며 서울 삼전사, 삼척 삼화사 옛 절터 등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문화재에 대한 조사·발굴 사업은 불교계의 연구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반증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불교계가 성보 문화재 관리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한 성과이기도 하다.

불교는 한국 유·무형 전통문화의 보고이다. 이에 대한 보존과 전승은 사부대중이 공히 노력해야 하는 화두이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 및 발굴사업은 성보 보존과 전승이라는 한국불교의 속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 발원

4월 19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룸비니서 채화해 옮겨온 평화의 불을 탐 바란 야드브 네팔 대통령이 직접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목해자 스님에게 전달했다.

방한하자마자 선목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5월 2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안철수 국회의원,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흥구 한국적십자 총재를 비롯해 108산사 순례기도회원 등 1만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의 불'을 이운행사를 가졌다.

선목해자 스님의 원력처럼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북한의 신계사 성불사 보현사 등 북한사찰 순례에도 이운돼 불을 발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것이다. 우선 어려운 고령의 길을 택해 평화의 불을 이운각까지 이운한 선목해자 스님의 원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행사를 통해 극한 대립하던 네팔 정치세력들이 한국 순례단 안전 보장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계기가 돼기도 했다. 네팔 정부는 이때 스님의 평화 공덕을 기려 국가 훈장을 수여했다.

선목해자 스님의 원력처럼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북한의 신계사 성불사 보현사 등 북한사찰 순례에도 이운돼 불을 발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판권: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교: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지사: (053)768-8008 광주전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02)456-8831 강원도: 019-396-1110 충청도: 010-8674-2357 경상도: 010-9190-3350 전라도: 011-248-6298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